

2023년 로컬크리에이션 연구회 활동결과 보고서

□ 연구회명 : 로컬크리에이션 연구회

□ 연구회 대표(회장) : 박춘섭

□ 연구회 구성원 :

- 원내(11 명) : 임준홍, 김양중, 이민정, 김진영, 윤향희, 장창석, 홍은일, 신혜지, 목소리, 김영수

□ 연구회 활동 목적

- [배경]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회자되는 가운데, 이 문제를 돌파하려는 다양한 전환적 시도가 전국적으로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맹아적 시도(niche)는 기술·사회시스템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지역연구자들은 이러한 현상과 시도에 대해 기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목적] 지역에서 발생하는 전환적 사건(현장)과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지역에서 만들어가는 새로움(로컬 크리에이션)을 확인하고, 정책적 소재를 발견하고 연구추진
- [방향] 지역혁신가 및 로컬 크리에이터 등 지역(로컬)을 기반한 활동가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있는 가운데, 우리 연구회는 다른 방향의 로컬활동, 일명 오래된 미래로서 로컬활동(의·식·주)에 대한 연구를 추진하였음
- [활동] 금년도는 '식'을 중심으로 로컬활동(일명, 백반집)의 현장탐방과 경험

□ 2023년 주요 활동 실적

회차	일자	포럼주제 및 장소	참석인원	비고
1차	11.17	현장탐방 및 인터뷰(보령시 동부시장내 서부식당)	-	
2차	11.27	현장탐방 및 인터뷰(광주시 해뜨는 식당)	-	
3차	내년	자본의 글로컬라이제션과 지역음식 문화로서 백반집 활동(예정)		

□ 주요 성과 활용 방향

- 현장탐방 및 인터뷰를 통해 로컬활동을 경험, 역사적인 발자취와 서민의 삶의 의미 확인
- 자본주의(프렌차이즈 등)로 인해 지역내 다양한 음식과 문화가 소멸되고 있으며, 백반집(활동)은 지역재료를 활용한 음식문화 유지, 저렴한 음식 '값'을 통해 지역민에게 복지제공, 상부상조를 통한 주민간 연대성 강화등의 역할을 확인

□ 차년도 개(선사항

- 23년도에는 '식'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나, 24년도에는 의·식·주를 포함한 로컬활동을 조사 및 탐방하여 지역을 입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 현장탐방을 중심으로 추진하였으나, 연구적 논의까지 발전하지 못함. 따라서 현장탐방+세미나를 추진하여, 연구성과물이 풍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차후 연구과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
- '초임' 연구회장의 준비부족 등으로 참석자가 많지 않았음. 따라서 내년에는 연초부터 적극적 추진하려고 함

□ 활동 세부내용(사진첨부)

구분	세부 내용(현장탐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백반집인 서부식당은 프랜차이즈가 점령한 지역에서 로컬활동으로서 의미가 있음. 이 식당은 맛과 가격, 재료 측면에서 로컬푸드로서 지역 내 서민들과 상생하는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있음 - 서부식당은 보령시 동부시장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오랜 기간 동안 3천원 백반을 유지해 왔음. 하지만 최근에는 방송 출연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백반 가격을 8천원으로 인상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시장 상인과 지역 어르신들에게는 3천원으로 판매하고 있어, 오히려 손님들이 4천원으로 천원을 인상하였음 - 서부식당은 40여년간 동부시장 내에서 백반 500원, 국수 300원으로 시작하여 착한 식당으로 알려져 왔음. 식재료는 직접 농사를 짓거나 시장 내에서 바로 조달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메뉴는 된장찌개와 김치찌개임. 제철 재료를 활용한 다양한 반찬들과 함께 한상차림을 제공하고 있음 - 서부식당의 사장님은 기부 등의 선행보다는 현재 운영 중인 식당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저렴한 음식을 제공하여 봉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마진이 남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제공하고자 함. 이러한 노력은 지역민들에게 큰 의미가 있음
	
	